



## 첨단 IT 기술, 이곳에서 사고판다

디지털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와 같이 미래 우리나라 IT분야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는 IT테크노마트2005가 지난달 9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대한ITRC(IT연구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우수 IT기술의 산업체 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개최됐다.

글 서주미 ZD넷 기자

**올**해는 133개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가 256개의 첨단 정보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전국 46개 대학 IT연구센터, 80개 중소벤처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자부품연구원(KETI) 등이 참가해 다양한 국내 IT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다들 참가부문이나 기술 분야, 관람 목적은 제각각이었지만 한결같이 한국 IT기술의 녹슬지 않은 면모를 보여줬다.

IT테크노마트2005는 기술사업화지원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평가기법을 활용해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술을 소개하는 '핵심이전기술설명회'와 기술이전 전문가 및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교육', RFID와 차세대 3D디스플레이 분야의 해외 교수들을 초빙해 진행된 'ITRC국제워크숍' 등이 주요행사로 개최됐다. 이밖에 '기술가치평가콘테스트', '로봇축구', '그리드기반 헬스케어 체험관'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대학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결과물을 발표하는 'ITRC 포럼 2005' 행사도 개최됐다. 대학ITRC 사업은 대학의 IT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대학원생의 대형 R&D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제공해 차세대 IT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 27개 대학, 46개 IT연구센터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학의 석박사급 학생들이 그동안 닦아온 실력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연구 기획 담당자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던 기업가들에게는 현재 국내외의 기술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최근 한창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작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는 기업에게 고급인력의 리쿠르트 기회로도 충분히 활용됐다. 주최측은 ITRC포럼을 향후 기술 거래의 영역을 확대해 기술 라이선싱·양도·양수뿐만 아니라 기술제휴·M&A까지 이뤄지도록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행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술판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줘 의미가 더욱 컸다. 기술수출의 경우 도입하는 국가의 수준에 따라 다른 기술도 함께 수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업체들도 관심이 컸다. 현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수출 노력은 국내에서는 이미 활용된 기술의 재활용 가능성까지 제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대학 ITRC협의회측은 “국내의 연구소와 대학에는 소개되지 않은 첨단 기술들이 아직도 많다. 이런 기술들을 발굴해 산업계와 연계하고 제품화 단계를 거쳐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IT테크노마트를 통해 503개 기관의 1,055종 기술이 전시됐다. 6차례의 행사를 통해 4,952건의 기술상당과 84건의 기술이전이 성사됐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기술료 수입도 13억원에 달한다. 행사소요 비용 대비 투자수익률(ROI)도 1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술이전 확산 분위기 형성 등 무형의 성과를 감안한다면 IT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코어 이벤트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주요 출품기술

이번 행사에는 일반 중소기업 79개처의 기술 145종, 연구소 2개 기관의 기술 15종, 정통부 ITRC지정 대학 46개처의 기술 90종을 선보였으며, 말레이시아 등 6개 기업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9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테마를 중심으로 배치돼 미래의 IT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IT업계의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모바일 부문과 DTV, 무선네트워크 부문의 기술 약진이 두드러졌다.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모비언스는 일명 ‘모바일 키보드’라는 기술을 통해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 기술은 다양한 모바일기기를 위한 문자입력솔루션인 ‘페스타입(Fastype)’은 한 가지 형태의 키보드가 모든 컴퓨터에서 쓰이고 있듯이 PDA, 휴대폰, 태블릿PC 등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단일화된 문자배열 방식을 적용했다.

핑거시스템은 이번 IT테크노마트에서 복합좌표 방식의 유비쿼터스 전자펜 기술을 선보였다. 이는 기존 제품과 달리 전자펜의 움직임은 상대좌표 방식과 절대좌표 방식이 결합된 복합좌표 방식으로 인식해 더 높은 정밀도로 필기 내용을 인식하며 그 결과를 자체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복합좌표 방식이므로 절대좌표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자펜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유이온은 플라즈마 응용기술인 ‘3차원 및 대면적 처리가 가능한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를 내놓았다. 이

장치는 3차원 구조 상품·재료에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해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반도체 등 전도 및 비전도성 물질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휴대폰 케이스, 액정화면표시장치(LCD), 인쇄회로기판(PCB) 세정 등 적용 범위가 넓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국무선네트워크는 지그비 기술을 이용한 무선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블루투스 스테레오 헤드셋을 선보였다. 이중 지그비 무선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지그비 휴대폰이나 노트북PC, PDA 등으로 집안의 각종 센서 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블루투스 스테레오 헤드셋은 반경 10m 이내에서 휴대폰, MP3플레이어, PMP 등의 각종 휴대용 기기에 사용할 수 있고 목걸이 형태와 헤드폰 형태 두종류가 있다. 최대 강점은 무선으로 음악 감상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전화를 받고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모테크는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세계 문자 입력 소프트웨어를 내놓았다. 정보통신 우수기술로 선정된 이 기술은 기존 문자입력방식의 단점을 개선하고 가장 편리한 입력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숙지하기 쉬운 자판배열, 단순한 입력규칙, 빠른 입력방식, 편리한 양손입력 등 10가지의 편리성을 검토해 사용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입력방식을 공급하고 있다.

##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벌써 7월을 맞은 IT테크노마트2005는 관람객을 행사로 참여시키기 위한 몇몇 이벤트를 마련했다.

기술가치평가 콘테스트는 참가 기술 중 우수한 기술을 선정해 가치 평가액을 산정해 보는 이벤트로 사흘간의 행사 기간동안 매일 한차례씩 진행됐다. 기술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거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열렸다. 이벤트 참가자들은 기술 가치 평가의 의의와 방법,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8개의 우수 기술들을 선정했다. 이 때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액을 제출, 사전 기술 가치 평가액에 근접한 참가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계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은 무엇보다 로봇축구 행사였다. 센서, 제어, 무선통신 기술 등이 집약된 로봇축구 경기에는 카이스트의 ‘RIT’ 팀과 성균관대 ‘ICRO’ 팀, 영남대의 ‘파워 서플라이6’ 팀, 호서대의 ‘하이-테크’ 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이외에도 대서양홀에서 전시 기간 동안 상시 운영된 그리드 기반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체형관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가상 홈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생체신호(ECG) 측정 체험과 유비쿼터스 환경의 센서 노드를 이용한 실시간 생체신호 전송을 보여줬다. 또 병원과 환자간 액세스 그리드 기반의 원격 진료 서비스 시연도 실시됐다. ●